

## 총회 소식지 2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리차 스승예수의 집에서 모두에게 인사 드립니다. 제 9 차 성바오로수도회 총회는 총회사무국 임원들을 선출한 후에 압도적인 다수결로 총회 일정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이 일정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5 월 1 일 토요일과 5 월 3 일 월요일: “ 창립 백 주년을 맞는 우리의 정체성” 에 대한 숙고, 5 월 4 일 화요일: 수도회 규범들에 대한 숙고, 5 월 5 일 수요일부터 같은 달 12 일 수요일까지 수도회의 계획 수립(일반 목표, 우선 실행 과제, 실행 노선), 5 월 14 일 금요일: 최종 문서 승인과 같은 순간들입니다. 이 가운데 5 월 6 일에는 식별의 시간을 갖고 7 일에 새로운 총원장을 선출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뒤이어 계획을 수립하는 일과는 별도로 총평의원들이 선출될 것이며 5 월 11 일 화요일부터는 의제를 토론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5 월 2 일과 9 일, 두 번의 주일에는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지역, 투샤와 카세르타를 방문할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총회 대의원들은 지역 장상들, 그리고 특히 총원장의 보고를 듣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보고자들이 우리 지역 관구들의 현황을 보다 잘 알리기 위해 멀티미디어와 영상을 이용하였습니다. 생생하고 다양한 형태를 지닌, 많은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 또한 공존하는 모습들 안에서, 무엇보다도 수도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의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회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원장 실비오 사시 신부는 매우 솔직하고 정확하게 수도회의 상태를 보고하였습니다. 총원장은 우리가 받은 바오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커다란 선물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성 바오로께서 우리에게 상기시키셨던 바 그 믿음의 확실성을 우리 안에 되살려야 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들이며 그 일에 있어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선물은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성을 부여하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창조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원장 사시 신부는 결론에서 창립자의 정신을 받아들여 삼천년기를 향한 새로운 복음화를 계획해야 한다는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신실하고 창조적이기 위하여 삼천년기의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이러한 복음화는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세우신 기준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다른 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를 느끼는 **믿음의 체험**, 커뮤니케이션 문화, 사회 그리고 교회의 현실적인 필요를 **인식하는 것**, ‘ 오늘 살아있는 성 바오로’ 가 되려는 선교적인 **목표**” 라는 기준입니다. 실비오 사시 신부는 끝으로 총원장으로서 육년간의 봉사를 마무리하면서 총평의원들, 총원의 봉사자들, 교회법 전문가, 지역 장상들, 총본부의 모든 형제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프란치스코 케사 수사에 대한 감동적인 기억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총회는 이제 창립 백 주년을 맞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소그룹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창립 백 주년, 삼천년기를 위해 수도회에 창조적인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을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특히 지금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형제 한 분이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알려왔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총회의 공식 언어는 이탈리아어이며 총회 기간 중에는 이탈리아어, 영어, 스페인어가 동시통역됩니다.

아리차(로마), 2010년 5월 1일

홍보담당 비서 안토니오 리졸로 신부